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25·토트넘)은 2017~2018시즌 4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는 등 8골을 기록하고 있다.

영 BBC 전문가 선정

손흥민, '올해의 베스트 1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25·토트넘)이 영국 BBC 전문가가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BBC는 25일(한국시간) 크리스 워틀(전 잉글랜드 국가대표), 팻 너빈(전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이안 데니스(BBC 라디오5 라이브 시니

어 리포터), 픽 맥널티(BBC스포츠 수석 축구기자) 등 축구전문가 4명이 뽑은 2017년 EPL 베스트11을 공개했다. 이중 이안 데니스가 4-1-4-1 포메이션에서 왼쪽 미드필더 손흥민을 택했다. 손흥민은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케빈 데 브라우너, 데이브 실버(이상 맨체스터 시티)와 함

께 미드필더에 자리했다. 나머지 전문가 3명이 선정한 베스트11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손흥민은 2017~2018시즌 4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는 등 8골을 기록하고 있다. 28일 사우샘프턴과의 리그 20라운드에서 9호골에 도전한다. /뉴시스

팬그래프닷컴, "오타니, 내년 성적 11승·11홈런 예상"



오타니 쇼헤이(23·LA 에인절스)

미국 무대에서도 오타니 쇼헤이(23·LA 에인절스)의 '투타겸업'이 통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야구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이 통계 프로그램 스티머로 오타니의 2018년 성적을 예측했다.

스티머는 11승에 11홈런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스티머는 오타니가 내년 시즌 24경기(148이닝)에 등판해 11승7패 평균자책점 3.48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시스

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도(WAR)는 3.1로 팀에 3승을 더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스티머는 타자 오타니가 0.257의 타율에 11홈런 36타점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오타니는 지난 2012년 드래프트 1순위로 니혼햄 파이타스에 입단했다. 2년차인 2014년 일본프로야구 최초로 한 시즌 두 자릿수 승수(11승)와 홈런(10홈런)을 동시에 달성했다. 지난 시즌에는 10승 4패 평균자책점 1.86과 함께 타율 0.322, 22홈런으로 리그 MVP를 차지했고, 팀의 일본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5시즌 동안 투수로 42승 15패 평균자책 2.52, 타자로는 타율 0.285 48홈런 166타점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 한편 오타니는 25일 홈구장인 삿포로돔에서 고별 기자회견에 임한다. /뉴시스

순창체육회, 2017 순창체육상 시상식·체육인의 밤 행사 열어

순창군체육회가 최근 실내체육관에서 2017 순창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갖고 내년 보다 나은 성적을 위해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순창군체육회장인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최영일도원, 체육회 임원 및 종목단체장과 동호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 한 해 동안 순창군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각 클럽과 선수들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생화체육부문의 최우수선수상에는 민숙경기협회 김재운씨가, 우수선수

상에 육상연맹 양우분씨, 씨름협회 설순환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애인체육부문에서는 최우수선수상에 장애인연합회 이재건씨 우수선수상에 지체장애인협회 신동수씨, 복민기씨가 수상했다. 전문체육부문의 최우수선수상에는 2017 전국체전에서 2관왕을 차지한 순창고등학교 역도선수 이승준 선수가 선정됐다. 한편, 단체 상에는 최우수단체상에 순창군 정구협회, 우수단체상에 순창군육상연맹, 최우수클럽상에 배드민턴협회 육천클럽, 우수클럽상에 정구

협회 순창화이트 정구클럽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지도자상에는 순창군청 정구팀의 홍정현 감독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무장상에 순창케이트볼협회 강용운씨, 우수 사무장상에 야구소프트볼협회 김래진씨, 골프협회 전인백 사무장이 수상했다. 공로상은 조경주 전 전라북도 정구협회장이 수상했으며, 오근수 전 체육공원사업소장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생활체육 발전에 헌신한 쌍치면 고성수씨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순창=이양원기자

프로축구 포항, 브라질 출신 중앙수비수 알레망 영입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가 25일 브라질 출신 장신 중앙수비수 알레망(31)을 영입했다. 올 시즌 중앙수비수 김광석의 부상으로 수비에 문제를 노출한 포항은 알짜감치 박진섭 코치(현 광주 FC 감독)와 스카우트를 브라질 현지로 파견해 중앙 수비지원 목적으로 나섰고 최종적으로 알레망을 낙점했다. 독일계 브라질 국적의 알레망은 190cm 84kg로 큰 키를 활용한 헤더능력



과 대인마킹 수비가 강점이다. 2017시즌 브라질 2부리그 빌라르바

에서 36경기에 출전해 3골을 득점하는 등 공격 가담능력도 뛰어난 선수로 전해진다. 포항스틸러스는 "알레망의 합류로 기존 중앙 수비지원인 김광석, 배슬기와 함께 더욱 경쟁력을 갖춘 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알레망은 내년 1월3일 메디컬 체크 후 4일부터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뉴시스

'신과 함께' 크리스마스 연휴 극장가 휩쓸어... 25일 400만 ↑

하정우·차태현·주지훈·김향기의 판타지 대작 '신과 함께-죄와 벌'(감독 김용화)이 크리스마스 연휴 극장가를 휩쓸었다.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신과 함께'가 개봉 6일째인 25일 오전 7시까지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7월 '암살'(약 1271만 명) 4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약 1049만 명) 등 역대 '1000만 영화'의 기록(7일)을 하루 2014년 12월 개봉해 역대 겨울 최고 흥행작으로 자리한 '국제시장'의 기록(12일)을 무려 열새 앞당긴 것이다. 이와 함께 '신과 함께'는 일요일이자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던 24일 전국 1884개관에서 8788회 상영하며 126만 5608명을 모았다. 이는 올해 8월 '택시운전사'(약 1219만 명)가 기록한 하루 최대 스크린 112만여 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20일 개봉한 '신과 함께'가 개봉 3일째 100만 4일째 200만, 5일째 300만, 6일째 400만 관객을 차례로 돌파하면



'신과 함께' 축이 주요 배우와 김용화 감독의 400만 인증샷을 25일 공개했다. 왼쪽부터 주지훈, 김 감독, 하정우, 차태현, 김향기, 김동욱.

서 1000만 관객 고지 돌파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28일부터 평일이지만 연말 관람 수요가 꾸준한 데다 27일 '강적'이라 할 수 있는 김윤석·하정우·유재진·김태리의 '1987'(감독 장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